

채워나가는 공부

한 ○ ○

-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
- 2022년도 5급 공채(행정) 일반행정직렬 합격

I. 들어가며

수험기간 동안 과연 내가 공부를 올바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가를 항상 고민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초반에는 공부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채워나가는 공부’를 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최적의 공부법을 찾고 꾸준히 밀고 나아간 결과 합격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수기가 여러분이 최적의 공부법을 찾는 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II. 과목별 공부방법

1. 제1차 시험

(1) 헌법

헌법은 제일 처음 1차 시험을 준비할 때 김유향 선생님의 기본강의를 수강했고, 매년 최신 판례 특강으로 최신 판례를 보완했습니다. 헌법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강의와 기본강의 책은 첫 시험 준비할 때 본 이후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도 기출문제집에 실린 다양한 국가시험들에서 출제된 생소한 선지들과 실전 모의고사에서 틀린 선지들을 워드로 정리해 둔 후 반복 학습했습니다. 또한 조문집을 사서

조문 하나하나 헛갈릴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 둔 후 반복 암기했습니다. 따라서 1차 준비기간 동안 저만의 요약집과 조문집을 반복 학습함으로써 헌법 시험에서 항상 안정적으로 90점 이상을 받았고, PSAT 준비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2) 언어논리

언어논리는 강의를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1차 시험을 처음 준비할 때에는 스테디를 통해 기출문제의 오답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2009년부터의 기출을 3회독 하고, 여러 강사들의 실전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언어논리 실전 모의고사들의 경우, 점수의 변동성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점수에 연연하지 않기 위해 마인드 컨트롤을 했고, 해설을 보고도 왜 틀렸는지 납득이 안 가는 문제는 고민하면서 시간을 쓰지 않도록 했습니다.

언어논리는 공부를 해도 자신감이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두 번째 PSAT부터는 강사의 기본강의 교재를 사서 혼자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강화 약화 문제를 연습하기 위해 이해황의 <강화약화 매뉴얼>을 사서 문제 유형과 유형에 맞는 풀이법을 익혔습니다. 강화 약화 문제는 리트의 추리논증 문제를 추천드립니다. 강화 약화 판단 기준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양질의 문제로 연습할 수 있고, 시중에 해설집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 공부하기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3) 자료해석

자료해석은 다른 과목보다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과목이라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안정적인 점수 획득에 유리한 과목입니다. 저는 PSAT 준비 기간에는 자료해석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첫 시험을 준비할 때에는 석치수 선생님의 기본강의를 들었습니다.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기본적인 문제 풀이 스킬들을 익혔습니다. 다만 여러 스킬들 중에서 잘 체화되지 않는 전략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런 부분까지 완벽히 익혀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익혀두어도 다른 문제에 잘 적용되는 않는 스킬들은 결국 나중에 보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강사들이 말하는 여러 스킬들 중에서 사후적인 풀이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저는 계산 연습에 집중했습니다. 창의적인 문제 풀이를 생각해내는 것보다 오히려 계산이라는 정공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시간 단축에 더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주말에 날을 잡고 비타민 한 권을 하루 만에 다 풀었는데, 이렇게 계산 연습에 하루, 이틀 정도 집중하면 계산 실력을 더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산 연습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동 중에 계산 연습을 하거나, 알람을 계산 문제를 풀어야 꺼지도록 하는 등 자투리 시간에서도 계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해석 점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양치기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문제 풀이 스킬과 계산 스킬을 체화하기 위해서 자료해석은 매일 1, 2회분을 풀었습니다. 또한 하루 날을 잡아서 자료해석만을 5회분 풀기도 했습니다. 모의고사를 풀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자주하는지 체크한 뒤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곱셈에서 실수를 자주 하면 비타민으로 보충하고, 그래프에서 범주를 잘 못 보는 실수를 했다면 오답노트에 기록해 둔 후 다음 시험을 풀기 전 오답노트를 읽고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4) 상황판단

상황판단은 박준범 선생님의 기본강의를 들으면서 기본기를 다졌습니다. 기출 문제를 풀면서 상황판단의 문제 풀이 실마리가 되는 여러 '장치'들을 익혔습니다. 또한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그 장치들을 확인하고 적용하는 방식으로 연습했습니다.

상황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풀어야 하는 문제'와 '풀지 않아야 하는 문제'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저는 퀴즈 유형에 취약했기 때문에 풀어야 하는 문제를 다 풀고 정답률을 높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법조문 문제와 일치부합문제는 정답률을 높이면서 시간을 단축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법조문 문제의 경우, '다만'으로 시작하는 조항, 개념 정의 등 자주 선지화되는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조문을 읽을 때 미리 이러한 장치들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또한 퀴즈 유형들 중에서 저는 수리 퀴즈는 꼭 풀었습니다. 시간이 다른 문제들보다 더 소요될 수 있지만 답은 도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 법조문 문제에서 아낀 시간을 퀴즈 문제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0년도에 PSAT을 한 번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때 가장 큰 패인이 상황판단에서 풀어야 하는 문제의 정답률이 낮았던 것입니다. 풀어야 하는 문제는 모두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제2차 시험

(1) 행정법

행정법은 2022년도 합격에 가장 큰 덕을 본 과목입니다. 이전에는 50점대 초반의 점수로 저조하였으나 이번에 60점대 점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행정법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암기(일반론, 판례문구), 쟁점 찾기와 사안 포섭, 최신 판례 숙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행정법에서는 암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2022년도 시험에서 60점대 점수를 받았는데, 그 이전에는 50점대 초반으로 점수가 저조했습니다. 이번 시험을 준비하면서 일반론과 판례를 꼼꼼하게 모두 암기했기 때문에 점수가 크게 상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법도 단권화를 했습니다. 일반론의 경우, 한 강사의 기본서를 토대로 키워드 중심으로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풀면서 해설지에 실린 일반론 중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대체하는 방식으로 단권화를 완성했습니다. 또한 판례의 경우, 반드시 현출해야 하는 판례 문구를 단권화에 반영했습니다. 시중의 핸드북에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는 판례도 직접 판례를 찾아서 중요한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판례의 경우 반대의견도 정리해두었습니다. 2022년도 시험에서 제2문의 경우 판례의 반대의견까지 서술하여 고득점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암기에 기반한 '쟁점 찾기와 사안포섭'이 중요합니다. 초시에는 스터디에서 행시, 변시, 사시, 입시 등의 기출문제를 함께 분석했습니다. 스터디원들과 사례를 같이 푼 후에 어떤 것은 왜 쟁점이 되지 않는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면서 법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법을 잘하는 스터디

원의 답안을 보면서 사안포섭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재시 이후에는 혼자 교수님 사례집과 3순환 모의고사를 다양하게 풀면서 쟁점 찾기와 사안 포섭을 연습했습니다. 교수님 사례집은 특히 쟁점찾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3순환 모의고사만 풀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데, 교수님 사례집의 문제들이 쟁점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이런 법리가 적용되는구나'를 배울 수 있어 더 촘촘하게 법리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수님 사례집은 3순환 이전에 학습하고, 3순환 기간에는 체크해 둔 문제만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셋째, 최신판례 학습은 최신판례 특강과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를 활용했습니다. 강사님의 최신판례 특강을 듣고 중요한 판례 문구를 단권화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를 구해서 풀었습니다. 2021년도 부분인허가 문제의 경우 당해년도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에 이미 출제된 적이 있어 최신 판례를 적용한 문제를 풀어보고 싶은 경우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2) 경제학

경제학의 공부 방향은 이론 학습과 문제 풀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 예비순환과 1순환을 들을 때에는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트리니티를 기본서로 하고, 트리니티에 수록된 문제들을 여러 번 풀었습니다. 그리고 재시 이후에는 이론에 대해 단권화를 했습니다. 문제에서 빈출되는 개념과 관련해서 꼭 답안에 현출해야 하는 것을 바로바로 떠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를 들어 완전경쟁시장의 정의, 완전경쟁균형의 특

징, 완전경쟁시장의 시사점을 한 페이지에 요약해둬으로써 앞으로 완전경쟁시장 문제를 풀 때 고민없이 바로 답안에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거시경제학의 경우, 기본서에 있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정운찬, 김영식 저, 주상영 저를 발췌독하여 마음에 드는 설명을 단권화에 요약해서 반영했습니다. 정운찬, 김영식 저로 발췌독을 하다가 2021년에 주상영 저를 읽기 시작했는데 주상영 저가 거시경제학에 대한 체계를 잡기에 더 쉬웠습니다. 주상영 저를 먼저 읽고, 정운찬, 김영식 저를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경제학에서 문제 풀이는 백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재시 이후에는 3순환이 되기 전에 연습책을 N회독 하였고, 자주 틀리는 문제를 체크해 둔 후 3순환에서 풀었습니다. 3순환 기간에는 연습책을 모두 돌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이전에 중요한 문제를 체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는 황중휴 선생님의 3순환을 수강하면서 정선문제집을 푸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3순환 기간에 연습책 문제를 모두 푸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3순환 기간에는 주요 강사들의 3순환 모의고사를 모두 풀고자 했습니다. 3순환 모의고사는 새로운 문제에 마주했을 때 어떻게든 비벼보는 연습을 하는 용도로 활용했습니다. 저는 2021년도 경제학 시험에서 70점대를 받았는데 제2문과 제4문을 모두 정답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정답을 도출하려는 논리가 맞았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도저히 도출하지 못하겠는 문제가 있더라도 자신의 논리로 일단 끌고 가보고 그것을 답안에 현출하

는 것이 우월전략입니다. 백지로 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3) 행정학

행정학은 ‘총론과 각론의 유기적 연계’와 ‘이론과 사례를 통한 구체성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단권화가 이 두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초시에서는 단권화 없이 박경호 선생님의 ‘재미있는 행정학’을 기본서로 하고 포스트잇을 붙이는 방식으로 내용을 추가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포스트잇으로 중구난방 정리하다 보니 체계가 잡히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언어와 논리로 구성된 행정학 단권화를 시도했습니다. 단권화는 최대한 간결하게 요약하여 한 눈에 관련된 내용이 모두 들어오게 요약했습니다. 예를 들어 관료제의 역기능에 대한 주제에 대해 관료제의 역기능에 대한 이론과 구체적 사례들이 B5용지 한 페이지에 모두 들어가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는 강사들의 3순환 자료를 모두 구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3순환 최고답안에서 좋은 사례들을 추출해서 단권화에 반영했습니다.

행정학은 답안을 쓰고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안을 쓰고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3순환 기간 이전에는 스티커를 활용하여 다른 고득점자들의 답안을 벤치마킹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3순환에는 답안 특강을 활용하여 강사님들에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연습했습니다. 행정학이나 정치학 같은 논문과목은 혼자 공부하기보다 다양한 답안들을 보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내 답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4) 정치학

정치학은 서술의 깊이가 중요한 과목입니다. 우선 서술의 깊이를 위해 정치학 단권화의 경우 행정학보다 더 자세하고 풍부하게 서술했습니다. 초시에는 김희철 선생님의 펀더멘탈만으로 단권화를 했습니다. 2019년도 다원주의와 조합주의와 관련된 문제를 펀더멘탈과 김희철 선생님의 3순환 내용을 풍부하게 단권화 해주었기 때문에 73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펀더멘탈에는 빠진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합니다. 저는 가장 자세하게 서술된 강사님의 기본서의 내용을 단권화에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단권화가 120장이 넘어가는데 암기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학은 정치학 3순환이 시작할 때 암기를 하면 늦기 때문에 반드시 3순환이 시작하자마자 주말을 이용해서 미리 암기를 열심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치학 답안의 경우, 답안의 범주화와 소문항 간의 연계가 중요합니다. 이는 정치학 논문들의 서술 구조를 읽음으로써 정치학 교수님들이 어떤 방식으로 글을 쓰시는지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서술할 때 국가/시민사회 또는 더 세부적으로 대통령/의회/시민사회로 범주화하여 서술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 문제의 경우 정당 내부와 정당외부로 나누어 정당 내부의 경우 정당의 조직·인사·재무, 정당 외부의 경우 정당과 정부, 의회, 유권자와의 관계를 논하는 방식으로 범주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학 답안을 쓸 때 소문항 간의 연계를 통해 하나의 글을 완성해야 합니다. 서론에서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결론에서 한국정치에 대한 시사점을 반드시

적었습니다. 또한 소문항 간에 연결문장을 서술하여 논문의 형식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5) 지방행정론

저는 2019년도 시험까지 정보체계론을 선택하다가 2021년도 시험부터 지방행정론을 선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정보체계론은 양이 적은 대신 무슨 내용을 공부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시험이 끝날 때까지 항상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방행정론은 양이 많은 대신 공부해야 할 이론들과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와 잘 맞았습니다. 다만, 지방행정론이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공부한지 얼마 안 되었고 행정학적 글쓰기가 자신에게 잘 맞는 경우 정보체계론을 선택해서 다른 과목에 더 집중하는 것이 우월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행정론의 답안은 관련된 내용과 이론을 행정학보다 더 다각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행정론은 목차를 4, 5개 이상으로 구성하여 내용을 더 다각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했습니다. 2022년도 시험에서 모든 문제에서 목차를 4개 이상으로 구성하여 하나의 내용을 자세하게 쓰기보다 다각적인 내용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지방행정론 문제는 행정학보다 훨씬 단순하게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초에 단권화를 할 때 자세하게 적어두었고 이를 실전에서 거의 그대로 현출했습니다.

주변 친구들 또한 학교 도서관, 고시촌 독서실, 본가 근처 독서실, 자취방으로 매우 다양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공부 장소를 선택하고 그 선택에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초반에 주변 친구들이 학교 중앙도서관 열람실에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따라서 그 곳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학부생들이 자주 와서 어수선한 환경과 탁 트여 있는 환경은 저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서재 근처에서 공부했습니다. 열람실만큼 학부생들의 통행이 많지 않았고, 도서관 스티디룸과 가까웠기 때문에 저에게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면접 탈락 이후 멘탈이 많이 안 좋아져서 학교 도서관에서는 계속 예민해졌습니다. 고시촌 독서실로도 공부장소를 옮겨보았으나 사람들이 뺄뺄하게 앉아 있는 환경이 스트레스였습니다. 돌이켜 보았을 때, 제가 가장 예민해졌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자취방에서 공부를 했어야 했는데, 자취방에서 느슨해질까 두려워 고시촌 독서실을 여러 군데 옮기면서 시간 낭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독서실을 이용해 본 후, 결국 자취방에서 공부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어, 학원 강의를 수강한 후에는 자취방으로 돌아와서 공부했습니다. 자취방에서 느슨해지지 않기 위해 스마트 폰을 복도에 두고 식사시간에만 확인하는 식으로 자기 검열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Ⅲ. 생활 전반

1. 공부 장소

공부 장소는 개인별로 매우 다양합니다. 제

2. 생활습관

생활습관은 3순환 기간과 아닌 기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순환이 아닌 기간에는 월요

일부터 토요일까지 7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공부하는 루틴을 지켰습니다. 초반에는 일요일에도 공부를 했으나 체력이 좋지 못하여 월요일 공부의 효율에 오히려 지장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일요일에 휴식을 선택했습니다. 일요일에는 헬스장이나 공원에 가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달리기를 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체력뿐만 아니라 일주일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PSAT 기간에는 매일 아침 헬스장에서 20분간 달리기를 한 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3순환 기간에는 7시 30분부터 새벽 12시 30분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도 오전은 늦잠을 자고 오후 2시부터 약 9시까지 부족한 공부를 보충했습니다. 일요일에 주로 정치학과 지방행정론을 공부했습니다. 3순환 막바지에 정치학과 지방행정론 3순환이 진행되기 때문에 미리 공부해두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았을 때 일요일에 무리하게 공부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이었던 같습니다. 면접 탈락 이후 마지막 시험이라는 압박감에 일요일에도 저를 몰아붙였으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선에서 공부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3. 스터디

스터디의 주된 목적은 강제성과 피드백입니다. 강제성이 목표라면 어느 스터디를 가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양질의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인 스터디원들과 스터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같이 공부를 시작한 친구들과 계속 스터디를 했습니다.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피드백을 여과없이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

점은 초반에는 실력이 비슷하다 보니 서로의 피드백이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실력이 쌓이고 각자 잘하는 과목이 생기다 보니 그 이후부터 스터디의 시너지가 생겼습니다.

2022년도에는 주변 친구들이 이미 모두 합격한 뒤였기 때문에 지인들과 스터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수록 스터디에서 피드백을 받는 것보다 강사에게 직접 피드백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는 강제성만을 목표로 다만 쓰는 스터디에 들어갔습니다. 그 대신 답안 특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학과 지방행정론을 제외하고는 3순환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강사님들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스터디가 필수가 아니라는 것에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 합니다. 그러나 혼자서 100점을 집중해서 쓰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답안만 쓰는 스터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V. 나가며

면접 탈락을 겪으며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시험이라는 터널이 결국 끝이 났습니다. 초반에는 주변에서 친구들이 많이 하는 공부방법이 저에게 맞지 않는데도 무작정 따라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에게 맞는 공부법이 있었고 공부법을 믿고 꾸준히 밀고 나간 결과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자만이 되는 것은 조심해야 하겠지만,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정진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이 글이 잘 맞는 공부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